

11
2025

재외동포의



특별 인터뷰 _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특집 _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기획 _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이슈 앤 화제 _ 남양주 사할린 동포마을 르포
이달의 재외동포 _ 현대 수학 발전 기여한 미국 임덕상 교수

10-14 November 2025
Incheon & Busan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2025 Overseas Korean Adoptees Gathering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2025 Overseas Korean Adoptees Gathering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10-14 November 2025
Incheon & Busan

750만 동포의 헌신, 내년 동포청 예산 삭감으로 빛바랜 '국가 자산'

재외동포 사회가 들끓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재외동포 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했던 750만 동포들이, 2026년 재외동포청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57억 원 삭감된 사실을 접하고 깊은 실망과 우려에 빠졌다.

표면상 2.1% 증가한 1천92억 원 규모지만, 사할린·입양 동포 지원 사업 이관(78억 원)으로 인한 '숨겨진 감소'가 드러나면서, 재외동포가 '국가 자산'이라는 정부의 의미마저 의심받는 지경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키고 IMF 외환위기 때 국가를 지탱한 동포들의 피와 땀을 기리는 최소한의 존중이, 예산 삭감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이 예산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명확해진다. 2023년 동포청 출범 이후 업무 영역이 확대됐음에도, 한글학교 역량 강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재외동포 DB 구축, 소통 플랫폼 등 국정과제 핵심 사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문화센터 건립(72억 원),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10억 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9억 원) 등 필수 사업이 대폭 줄었고, 86만 명을 넘어선 귀환 동포를 위한 예산은 여전히 10억 원에 그친다. 750만 동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예산이 국내 5만 명 지자체(8천억 원)나 10만 명 규모(1조 원)를 훌쩍 밀도는 수준이라니, 이는 동포 사회의 생존과 번영을 외면하는 처사다.

왜 이 예산 증액이 절실한가? 재외동포는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메시지에서 강조한 대로, 재일동포들의 독립운동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케 했고, 그들의 공간 9곳 기증은 영원한 증표다. 오늘날에도 동포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문화 교류를 주도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은 이러한 잠재력을 묶어둔다. 한글학교 지원 없이는 차세대 정체성이 약화되고, 귀환 동포 정착 미비는 사회적 비용을 키우며, 소통 플랫폼 부재는 공공외교의 빈틈을 만든다. 결국, 증액은 정부의 '국민주권'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총재

실천이자, 동포 사회의 불편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열쇠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포청 출범이 충분한 준비없이 급조돼 출범함으로써 예산과 조직 미비로 인해 반쪽짜리 동포청"이라 밝힌 바 있듯,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 확보가 시급하다.

따라서 동포 사회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동포청 예산 삭감 문제가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재외동포청이 동포업무 범정부 컨트를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750만 동포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모국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예산의 대폭 증액이 절실하다. 이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다.

재외동포청이 '일하는 청'으로 거듭나려면, 예산 증액이 필수다. 750만 동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동포사회가 함께 외쳐야 한다. "750만 동포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 지금이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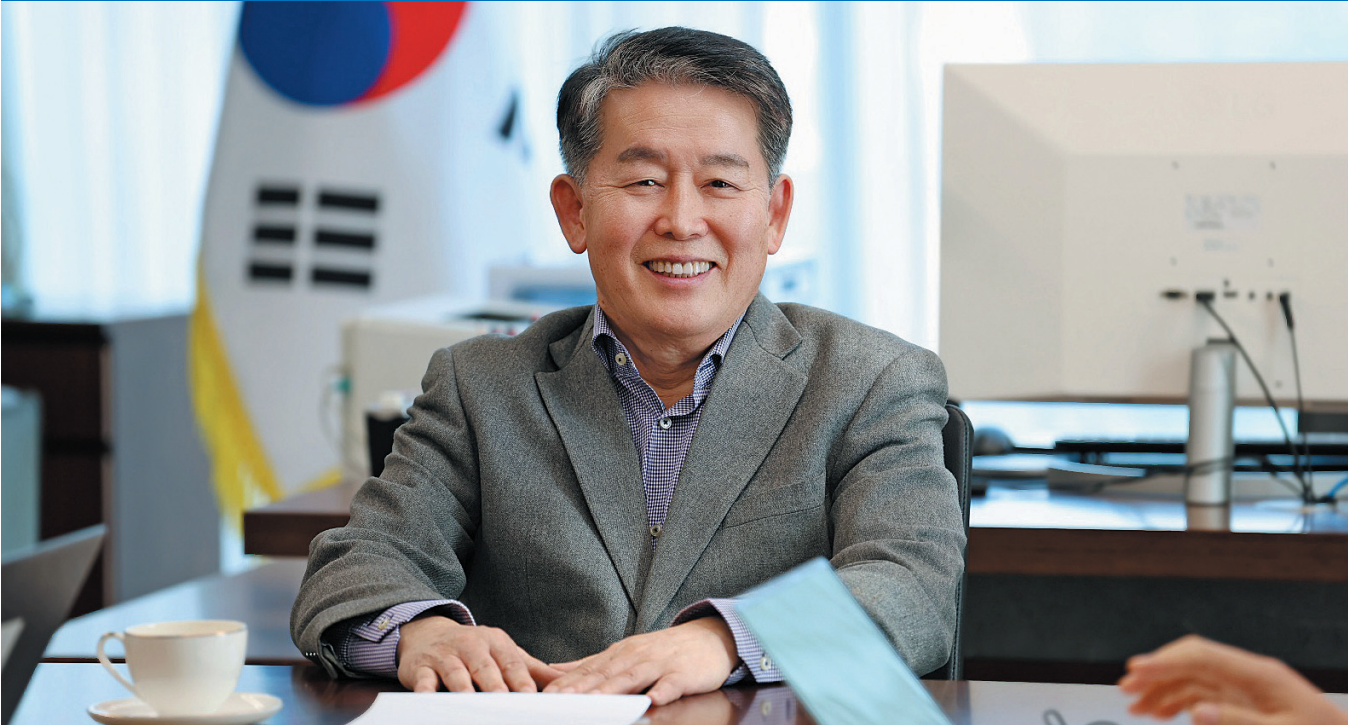


- | | |
|--------------------|---|
| 02 창을 열며 | 750만 동포의 헌신, 내년 동포청 예산 삭감으로 빛바랜 '국가 자산'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총재 |
| 04 특별 인터뷰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복수국적 연령하향 · 재외국민투표 개선 적극추진" |
| 08 특집 |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해외서 한글로 쓰는 마음, 큰 울림 남겨"
인터뷰 - 단편소설 부문 대상 수상자 김혜진 작가
수필부문 대상 수상자 김지현 작가 |
| 12 기획 |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뿌리 · 정체성 · 연대 확인한 '한인입양동포대회' 성료
인터뷰 - 이재동 프랑스 한국뿌리협회장
함초롱 미국 변호사 |
| 16 이슈 앤 화제 | 남양주 사할린 동포마을 르포 |
| 18 이달의 재외동포 | 현대 수학 발전 기여한 미국 임덕상 교수 |
| 20 초대석 | 전홍배 2025 세계한민족지도자대회장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복수국적 연령 하향 실시하라" |
| 22 정책 공감대 | 중국 동포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화 |
| 23 뉴스속으로 | OK-Biz, 전북 120개 중소기업과 수출상담 |
| 24 OKA 뉴스 | 재외동포청, 동포 권익 보호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 외 |
| 26 재외동포청 공지 |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찾아요" |

발행인: 김경협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2-6747-0404,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 · 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재외동포청을 처음으로 이끌게 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경협 청장

“복수국적 연령하향 · 재외국민투표 개선 적극추진”

“재외동포 관리 · 규제 대상 아닌 협력 동반자…수요자 중심 정책 펼칠 것”

“700만 재외동포는 우리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행정 편의의 시각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동포 정책을 펼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재외동포청을 이끌게 된 김경협 (63) 청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인천 송도 본청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직과 예산이 아직 반쪽짜리지만 3선 국회의원 경험을 살려 정부 부처와의 업무 조율과 국회 협력을 끌어내 동포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힘쓰겠다”고 6일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최초로 동포 업무를 맡았었고, 국회에서는 지난 2017년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 기본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또 고려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힘쓰기도 했던 그는 “동포사회의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알고 있던 차에 청장을 맡게 돼 운명이다 싶으면서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재외동포청은 아직 신생 조직으로서 갈 길이 멀다며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준비를 거치지 못하고 급조하듯이 동포청이 출범하면서 불안정하고 영성한 조직 체계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며 “더욱이 예산도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과 별 차이가 없다 보니 동포사회에서 피부로 느끼는 혜택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8년 전 동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할 때도 여러 부처에 산재한 재외동포 업무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상황”이라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한인사회 아우르는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지난 10월 2일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동포청의 대응은?

동포청에서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40세로 낮출 경우 2044년에는 생산 유발 효과가 6조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용 연령을 낮출수록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건이나 발의될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동포청은 연령 하향 시 효과와 사회복지 및 병역 문제 등 유관 제도와의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글로벌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동포사회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된다. 연령 하향은 동포사회가 모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동포청은 정책 효과 및 동포의 모국 기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 공감대 형성에 힘을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공관 투표를 위해 많게는 수백~수천km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일은 벌써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다만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 등 재외선거의 제도 개선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무엇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외선거 투표권자들의 요망사항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더욱 편리해 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동포청이 동포재단 때와 비교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포청 직원 개인의 자세나 역량 부족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라고 본다. 동포청이 정부 중앙부처이다 보니 조직과 예산의 경직성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동포사회에서 까다로워진 행정으로 전보다 지원받기 힘들어졌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예전에 동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할 때도 민간 지원기구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이재명 대통령, 고탁희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조직·예산 아직 반쪽 수준 …3선 의원 경험 살려 부처·국회 협력 이끌 것”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이스라엘의 경우 다양한 유대인재단이 있어서 정부와 이런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기본법’을 만들 때 법안에 명시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된 것이 아쉽다. 현재 상황에 맞춰 동포 지원체계와 업무 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지원기구로 세계한인재단(가칭) 설립도 추진해볼 계획이다.

과거 동포재단 시절 재외공관에 동포 업무 담당 영사를 파견했던 제도를 복원·확대할 계획이라던데?

모든 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정책 담당자인 직원이 동포 사회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맞춤형 동포지원’과 ‘동포역량 극대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번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위해서라도 과거 동포재단 시절 영사를 파견했던 미국(LA·뉴욕),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베트남(호찌민), 호주(시드니), 카자흐스탄(알마티)뿐만 아니라 동

포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파견을 확대해 나가겠다.

재단 시절과는 차별화된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한 영사 파견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또 동포청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 현장 방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체 국외 훈련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 현장 역량을 강화하겠다.

국내 귀환 동포가 86만명으로 늘었고, 곧 100만 명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정착을 돕는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던데?

지난 2015년 30만명 수준이던 국내 체류 동포는 10년이 지난 현재 86만명을 넘었다. 일시 체류보다 모국에 정착하려는 동포들이 늘고 있어서 체류자격 외에도 취업, 주거 확보, 자녀 교육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체류·고용·복지 등 분야별로 부처에 산재해있고, 외국인의 국내 체류 관점에서 시행해왔기에 귀환 동포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귀환 동포를 지원할 책무가 있다. 당면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혈통·언어·문화를 공유하는 재외동포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동포청은 귀환 동포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에 이들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해 각기 사정에 맞추어 안정적인 정착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 내 국내 동포 정책 총괄·조정, 맞춤형 지원, 제도 개선, 대국민 인식개선 등에 앞장서겠다.

동포청이 출범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동포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다. 창구 일원화를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재외동포기본법’의 취지 중 하나가 부처에 산재한 동포 업무를 동포청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유사 업무가 부처에 산재해 있다 보니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업무 통합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조율해 동포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사할린 동포 지원 업무와 입양 동포 지원 사업을 이관받아 더 내실 있게 하게 됐다.

동포청 예산이 재단 시절에 비해 크게 늘지 않다 보니 동포사회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에 차이가 없다는 불멘소리로 나온다.

“역할 분담할 민간 지원기구 필요”...영사 파견 · 귀환 동포 지원 적극 추진

2024년 1천67억원에서 올해는 1천71억원으로 3억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도 1천92억원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600억~700억원이던 동포재단 시절보다 예산이 는 것 같지만 직원도 2배 이상 늘어났기에 예산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양한 정부 부처와 민간 등의 인적자원이 합류한 동포청은 출신 배경이 다양하다 보니 팀워크 발휘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시스트다. 팀워크가 제대로 발휘될 때 훌륭한 어시스트가 나온다. 난 공무원 출신이 아니기에 구성원 누가 어디 출신인지 모른다. 출신에 따른 차별은 절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출신에 따른 장점을 잘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 팀워크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부서 내에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을 고루 배치하겠다.

1970~1990년대와 달리 대한민국 국력이 상승했고, 동포사회도 거주국에서 위상이 높아졌다. 달라진 상황에 맞게 동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K-컬처, K-드라마, K-푸드, K-뷰티 등 전 세계에 한류열풍, 국격 상승과 더불어 우리 동포사회 역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잠시 위기가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해 모범적인 민주국가이자 문화 강국으로 돌아왔다. 이는 동포분들이 해외에서 모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되도록 다양한 공공외교를 펼치며 응원해준 덕분이다.

재외동포는 글로벌 통상국가의 기반이자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혀온 개척자이기도 하다. 남북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동포 역할이 필수적이다. 모국과 동포사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민간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재외동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적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우선인데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복안은.

제대로 된 동포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DB 구축이 동포재단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완 등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재외동포 · 재외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10월 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이 국내 출입국 과정에서 스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내국인과 재외동포 간의 차별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밖에 새로 추진하거나 바뀌나갈 정책 또는 비전 등이 있다면.

차세대 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글학교 등의 지원을 확대해 정체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포사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동포들이 거주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인구소멸 등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우수한 동포 인재들을 확보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재외동포 청년 인재 유치 · 정착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포청은 우리 동포들이 모국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동포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 

“해외서 한글로 쓰는 마음, 큰 울림 남겨”

61개국 2천467편 응모 역대 최대...대상 3편 포함 12명 시상
동포청 “전 세계에서 한글로 이어지는 한국문학의 지평 확대될 것”

낮선 타국에서 한글로 자신의 삶을 써 내려온 재외동포 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9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교원투어콘서트홀에서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시, 단편소설, 수필 3개 부문의 대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재외동포청이 처음으로 수상자 전원을 모국에 초청, 문학 교류의 장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단편소설 부문 대상을 받은 김혜진(호주) 작가는 수상소감에서 “가족들이 잠든 늦은 밤 식탁에서 쓴 무용한 시간이 나를 살렸다”며 “앞으로도 한 문장 한 문장 정직하게 써 내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처음으로 수상자 전원 모국에 초청

수필 부문 대상을 받은 김지현(미국) 작가는 “낯선 땅에서 언어의 벽으로 목소리가 희미해질 때 고사리를 채취하는 손끝의 소리가 나를 되찾게 했다”며 “내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빛처럼 닿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전에 이 상을 바친다”라고도 덧붙였다.

시 부문 대상 박태인 작가는 “문학이라는 공통 언어로 세계 곳곳의 동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감격스럽다”며 “첫 수상이어서 더욱 과분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사과배’로 시 부문 가작을 수상한 중국 출신 리웅 작가는 연변 사과배의 유래를 소개하며 “사과와 배의 이중적 모습처럼 해외 동포의 정체성도 두 세계를 품고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그는 “이 상은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연변 동포와 전 세계에서 우리말과 문화를 지켜온 모든 이들에게 주는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제27회 재외동포문학상 작가와의 대화

16년째 심사를 맡은 박상우 소설가는 “전 세계 삶의 궤적을 작품으로 접할 때마다 제 시야가 좁았음을 깨닫는다”고 말했다. 그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흐름이 “이민·정체성 단계를 넘어 난민·기후·경제·디지털 문화를 아우르는 확장된 세계”라고 진단하며 “재외동포 문학이 세계 문학의 한 지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61개국서 965명이 총 2천467편 응모 최고 기록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축사에서 “재외동포 문학상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 문학의 힘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며 “해외에서 한글로 글을 쓰는 노력 자체가 고국과 한민족을 잇는 귀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외에서의 외로운 글쓰기 여정을 함께 나누는 문학적 연대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1999년 출범한 재외동포문학상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의 한글 문학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담은 우수한 문학작품을 발굴·소개하기 위해 매년 수상자를 배출해 오고 있다.

27년간 누적 721편의 수상작을 배출하며 ‘세계 유일의 재외동포 한글 문학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61개국에서 965명이 총 2천467편을 응모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국내 문인 초청, ‘작가와의 대화’도 마련

재외동포청은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후 수상작 낭독회와 국내 문인들을 초청해 ‘작가와의 대화’ 행사도 마련했다. 윤소라 성우의 ‘수상작 낭독회’에 이어, 우한용 작가의 특강, 구효서·박상우 작가와 수상자들 간 ‘작가와의 대화’가 이어져, 재외동포 문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한용 작가는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설명했고, 구효서 작가는 디아스포라를 소개한 소설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작가는 “우리의 언어를 문학으로 승화하는 일이야말로 한국어를 보존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작가와의 대화에서는 인공지능(AI)이 문학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AI 시대의 문학 창작 방향과 디아스포라 문학의 정체성, 작가 경험의 한계 등 폭넓은 주제로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AI 글쓰기, 인간의식 결여…표절 반복일 뿐”

대화의 첫 화두는 AI 창작 문제였다. 박상우 작가는 “AI는 기존


소설을 재조합해내는 도구일 뿐 인간의식과 경험을 담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생성하는 문장은 얼핏 그럴듯하지만 대부분 머신러닝으로 학습된 기존 텍스트의 재탕에 가깝다”며 “순수 창작이 아니라 ‘평면적 모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효서 작가는 “챗GPT에게 시 평을 요청하면 우아한 언어가 나오지만 이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속임수’에 가깝다”며 문학적 ‘의식’의 부재를 강조했다.

한국 문학계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박 작가는 “신문사 신춘 문예에서 AI 검출 프로그램으로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만, 정확도가 낮아 AI 사용을 기준으로 당선 취소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재외동포 문학상 심사에서도 AI 활용 문제는 실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박 작가는 “대상 후보작을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퍼센티지를 보고 토론한 적이 있다”며 “무시할 수도, 배제할 수도 없는 시대적 변수”라고 말했다.

한편, 동포청은 동포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방한 기간 서울도서관 등에서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운동주 문학관, 남산도서관을 방문하는 등 재외동포 작가들이 모국의 문화와 문학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품집인 ‘2025 재외동포 문학의 창’은 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디오북은 서울도서관 및 남산도서관 내 비치된 다운로드 서비스 안내문과 다운로드 사이트(buly.kr/6ii8yAD)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시상식 및 작가와의 대화 영상은 재외동포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암투병 · 육아 · 사업…그 고통이 결국 제 글이 됐죠”

“생존을 위해 ‘악어’가 된 이민자들…저 역시 악어였어요”

“**이**민자로 살면서 다양한 얼굴의 ‘악어’들을 만났습니다. 오래전엔 판단했고, 시간이 지나선 동정했으며, 지금은 피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악어였어요.”

재외동포청 주최 제27회 재외동포문학상 단편소설 부문 대상을 받은 호주 거주 김혜진(43) 작가는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이민자로서의 삶과 작가로서의 정체성, 수상작 ‘악어’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국어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친 그는 2009년 남편의 유학을 계기로 이민을 선택했다. 2019년 소설집 ‘자기만의 방’을 펴내며 본격적인 작가 활동에 나섰다. 호주에 사는 워킹홀리데이 출신 불법 이민자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 ‘청소의 신’으로 ‘2025 제12회 교보문고 스토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해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김 작가의 ‘악어’에는 호주에서 마주한 다양한 이민자들의 얼굴이 담겨 있다. “한국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태워 나르고,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욕을 먹고, 비인간적인 면까지 드러내는 삶들. 그들은 포식자가 되고 싶지만, 결국 누군가의 가방이 되는 악어처럼 보였습니다.”

작품 속 악어는 “살기 위해 많은 것을 감내해야 했던 사람들”의 은유다. “악어는 누구나 가진 냉정함과 이중성, 그리고 생존 본능의 상징입니다. 이민자들은 남의 나라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러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 삶의 방식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는 “대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웃었지만 시상식에서 느낀 감정은 달랐다. “소설은 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 수상은 큰 위로였습니다. 소감을 발표하다가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민 초기, 그는 육아와 생계의 무게 속에서 글쓰기와 멀어졌다. 설상가상으로 희귀암 진단을 받았다. “아이가 한 살 때부터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약 5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일가친척 없이 아이를 키우며 항암치료를 받았던 시절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오히려 소설을




단편소설 부문 대상 수상자 김혜진 작가

쓰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지금은 검사를 중단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는 그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식구들이 다 자러 들어가면 그때 항상 식탁에 앉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고 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글쓰기를 통해 고단한 이민 생활을 버텼다.

남편과 딸은 호주 국적을 취득했지만, 그는 여전히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시민이 되면 한국 소설을 쓰는 작가로서 당당하지 못할 것 같아 시민권을 포기했다”며 모국어와 글쓰기, 국적에 대한 깊은 애착을 드러냈다.

이번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에 대해 김 작가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환대를 받은 것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며 재외동포청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다음 달 KBS 라디오 문학관 출연을 앞둔 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모국어로 짓는 나의 집은 크고 넓는데, 이방의 언어로 지켜야 하는 삶은 늘 힘에 부칩니다. 그 버팀목이 제 소설입니다. 천천히, 오래 쓰고 싶습니다.” 

“고사리처럼 꺾여도 다시 피어나는게 동포들의 삶”

IMF 이후 미국서 다시 찾은 문학의 꿈…“공감 주는 글이 제 소명”

“**똑** 똑 꺾이는 소리요? 제 삶이 꺾이는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죠. 버릴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알려준 게 고사리였어요.”

제27회 재외동포문학상 수필부문 대상 수상작 ‘고사리’의 주인공 김지현(61) 작가는 시상식 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민자로 살아온 20여 년의 삶과 문학적 여정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는 2002년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했고, 이후 시애틀에 정착했다. 김 작가는 IMF 이후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남편의 조기퇴직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기러기 가족 형태였지만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결국 온 가족이 미국으로 모였다. 낯선 땅에서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테네시에 머물던 시기 친정어머니 장례조차 지키지 못했다. “직항편이 없어 왕복에 사흘이 걸렸어요. 그때 마음의 빛이 많이 쌓였죠.” 이 경험은 훗날 그의 글 속에 묵직한 그늘로 녹아들었다.

그는 한국에서 금성출판사 편집자로 일했고, 고등학교 영어교사로도 짧게 활동했다. 중·고등학교 내내 문예반 활동을 하며 수상 경력이 끊이지 않은 ‘문학 소녀’였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면서 창작 세계와는 멀어졌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파란 감나무가 나오는 태몽을 꾸셨다고… 그게 문학가가 되는 꿈이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받은 격려는 오래 잠들어 있다가 2020년 팬데믹을 계기로 다시 깨어났다.

코로나 시기 가게 운영이 한가해지자, 그는 시애틀의 끊임없이 변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일기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재외동포 여성의 삶과 내면을 담담하게 그려낸 ‘버티기’라는 제목의 수필을 서북미 문인협회 공모전에 제출해 가작을 받으면서 그는 다시 ‘문학의 자리’로 돌아왔다. 새로움보다 오래된 감각이 더 익숙했다.

김 작가는 지난해 시어머니 장례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고사리를 채취한 경험을 글로 옮겼다. “고사리를 딸 때 ‘똑똑’ 소리가 나잖아요. 딱 꺾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수필부문 대상 수상자 김지현 작가

들으면서 제 인생의 꺾임들을 떠올렸어요. 꺾여줘야 손에 담기고, 안 꺾이면 그대로 놔줘야죠.”

고사리를 말리는 과정 역시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과 닮아 있었다고 했다. 더욱이 고사리가 밟혀도 다시 자라나는 생명력은 이민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이미지였다고 설명했다. “밟히고 지고… 그래도 다시 올라오는 힘. 이민자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대상이라는 결과는 그의 내면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는 “좋은 글은 결국 공감의 힘”이라며, 더 깊이 배우고 더 넓게 관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회가 된다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각자에게 위로가 되는 소재로 공감대를 만드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김 작가는 재외동포청이 준비한 시상식과 행사 운영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국가유공자도 아닌데… 사실 취미생활 하다가 상 받은 건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감동했어요.” 

뿌리 · 정체성 · 연대 확인한 ‘한인입양동포대회’ 성료

김경협 청장 “입양동포 지원을 재외동포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김혜경 여사 “대한민국은 입양동포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모국’ 될 것”



개막 인사하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주최한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가 ‘뿌리’, ‘한민족 정체성’, ‘모국과의 연대’를 확인하고 부산시 동래구 소재 농심호텔에서 폐막했다.

지난 10일부터 5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함께 있는 뿌리,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10개국 입양동포 90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20여만명에 달하는 세계한인입양동포들이 모국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회복하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대부분 모국을 처음 방문한 이들은 인천과 파주, 울산, 부산 등에서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입양동포들은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배식 및 환경미화 봉사, 농촌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한인 정체성과 모국과의 유대를 재확인하고 입양동포 간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입을 모았다.

파주 ‘엄마품동산’ 찾아 치유의 시간 가져

특히 경기 파주시에 있는 ‘엄마품동산’을 찾아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입양인들은 ‘기억의 벽’과 ‘평화뮤지엄’을 차례로 둘러보며 추모와 위로의 의미가 담긴 공간을 체험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기억의 벽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거나,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 평화 뮤지엄에 있는 900명의 입양인 사진과 사연들을 읽어보고 사진에 담은 입양인도 눈에 띄었다.



10일 인천 송도 웨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개막한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상 축하하는 김혜경 여사

미국에서 온 캐리 로서(한국명 함초롱·49) 변호사는 기억의 벽 앞에서 입양인들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보며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은 마음속의 나라였다면, 오늘은 실제로 내가 딛고 선 땅이 됐다”며 “이곳의 공기, 나무, 돌 하나에도 ‘기억’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프랑스 출신 입양인 로홍 뒤물랭(한국명 이재동·43) 한국뿌리협회장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직접 듣고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졌다”고 전했다.

엄마품동산은 미군 기지였던 캠프하우스 부지(61만㎡) 일부에 2천224㎡ 규모로 조성된 상점 공간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다시 품에 안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방안 모색

올해 대회에서는 전 세계 입양동포 단체장 16명도 참여해 지역별 분임토의와 단체장 포럼을 열어 공동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단체장들은 단체 및 단체장의 역량 강화, 정책 참여, 2026년도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및 세계한인입양인협회 모국 방문행사 병행 개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폐막식에서는 ▲모국과 입양동포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정책소통 강화 ▲글로벌 입양동포 네트워크 및 리더십을 위한 지원 확대 ▲차세대동포로서의 입양동포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국별·지역별 입양동포 커뮤니티 지원 강화 등 모국과 협력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이행문도 채택했다.

재외동포청은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향후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전 세계 입양동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전담 창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행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10개국 90명 참가…대부분 모국 첫 방문

앞서 10일 오후 인천 송도 웨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입양 과정을 거쳐 각국에서 살아온 여러분의 지난했던 여정을 존중한다”며 “법무부·아동권리보장원·해외입양인단체와 협력해 ‘뿌리 찾기’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입양동포 지원을 재외동포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입양동포가 한민족의 자부심을 되찾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여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입양동포들이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간직한 채 훌륭하게 성장해온 데 대해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입양동포들이 겪어온 시간을 깊이 공감하고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진정한 ‘모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7월 19일,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 변화로 민간 입양기관 주도에서 국가 주도 입양 체계로 전환됐다”며 “국가기록원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 입양 기록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폐회식에서 변철환 동포청 차장은 “여러분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이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라며 “동포청은 입양동포가 거주국에서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성장하는 데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뿌리 찾기는 존재 의미 확인하는 치유의 여정”

이재동 프랑스 한국뿌리협회장 “국적 초월해 ‘세계 입양인 연대 네트워크’ 만들 때”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참석차 모국을 찾은 이재동(프랑스명 로홍 뒤물랭 · 43) 프랑스 한국뿌리협회장은 1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입양인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웹디자이너이자 그래픽 전문가인 그는 침체된 뿌리협회를 되살려 입양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되찾고, 한국과 프랑스 간 문화 교류의 새 장을 열고 있다. 한국뿌리협회는 1995년 설립된 프랑스 최초의 한국 입양인 단체다. 프랑스에는 약 1만2천 명의 한국 입양인이 거주하며, 이는 유럽 최대 규모다. 협회는 재외동포청,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손잡고 입양인 귀국 지원, F-4(재외동포) 비자 안내, 한국어 교육, 가족 찾기 등을 통해 입양인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 회장은 “회원의 10~15% 정도가 한국의 친가족을 찾았다”며 “이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치유의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 역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NCRC)과 프랑스 외교부의 도움으로 친부모와 세 이복형제자매를 만났다. “가족을 다시 만난 순간 모든 것이 치유되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지난해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젊은 세대의 참여 부족으로 협회가 위기에 처했었다”며 “새로운 프로젝트로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을 살려 홈페이지 개편, 홍보물 디자인, SNS 콘텐츠 제작 등 모든 시각 콘텐츠를 직접 손봤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봤다. 협회는 온라인 한국어 강의, 합창단 창설, 김밥 아틀리에 등 한식 체험 프로그램, 추석·설날 행사, 한국 대사관·한글학교·여성회·유학생회와의 공동 행사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다시 활기를 띠었다.

프랑스 전역으로 네트워크를 넓혔고, 지난 5월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는 400여 명이 참석해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글로벌 차세대 서밋(GFGS)’ 1기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양인 청년들이 한국에서 학업과 창업 기



이재동(프랑스명 로홍 뒤물랭) 프랑스 한국뿌리협회장

회를 얻도록 정책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양인 차세대는 과거만 찾는 세대가 아니다. 한국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글로벌 세대”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활동은 프랑스에서도 주목받는다. 프랑스 외교부의 국제 입양 미션과 협력해 입양 절차 투명성, 기록 보존, 가족 재회 지원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우리는 단순한 입양인이 아닙니다.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적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의 혼합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회장은 프랑스 내 모든 입양인을 아우르는 통합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국적과 출신을 초월해 입양인들이 정체성, 가족, 사회적 연대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는 한인 입양인이자 세계 입양인의 일원”이라며 “이제는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계 입양인 연대 네트워크’를 만들 때”라고 포부를 밝혔다. **[창]**

“49년 만에 찾은 뿌리…처음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함초롱 미국 변호사 “전쟁 고아 생모의 입양 선택…더 나은 삶 위한 결정에 감사”

“서울에서 태어나 세계 곳곳을 누볐지만, 49년 만에 모국 땅을 밟았습니다.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단단한 공동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에 참가차 모국을 처음 방문한 함초롱(미국명 캐리 로서·49)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함 변호사는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생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아이오와주 북부 인구 3만 명 규모의 메이슨 시티에서 독일·네덜란드 혈통의 양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바이오제약 회사에서 준법 감시책임자이자 생명과학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곳곳을 둘러본 그는 올리브영에서 딸들을 위한 화장품을 사고, 자신이 태어난 병원 터를 지나며 “운명 같은 순환과 귀환의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함 변호사가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최근 들어 더욱 구체화했다. 전화로 친언니와의 감동적인 재회를 통해 가족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다.

생모는 건강 문제로 직접 만남이 어렵지만, 언니를 통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생모는 6·25전쟁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저를 입양 보낸 건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 결정에 더욱 깊은 이해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가족사는 특별했다. 양어머니 역시 입양인이었고, 오빠도 한국에서 온 입양인이다. 그는 “우연이 아닌 의미 있는 이어짐”이라고 말했다.

그의 양부모는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부모 모두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대학생과 변호사가 된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다고 전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순간, 그리고 남편이 결혼 허락을 구했을 때 부모님은 가장 기뻐하셨어요. 저를 무조건 사랑하고 지지해 주셨죠.”



파주 '엄마의품동산'을 찾은 함초롱 미국 변호사

함 변호사는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막식에서 입양인 대표로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회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성장하자.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다시 시작된다”며 참석자들에게 교류와 성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입양인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정체성의 모자이크를 완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서로 다른 경험이 모여 형성된 독특한 모자이크”로 표현했다. “우리는 서로의 조각으로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인정하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함 변호사는 재외동포청의 입양인 초청 행사를 높이 평가했다.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다리를 놓는 일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문화적 기회와 공공적 인정을 포함합니다. 특히, 김혜경 여사의 영상 메시지는 우리가 한국의 일부라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입양인들과의 네트워크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장**

8년 만의 모녀 포옹...“살아 있는 동안 자주 보자”

5년간 멈췄던 하늘길...동포청 지원 재개로 모국 찾은 사할린동포 2·3세
이산의 아픔 넘어 영주귀국 부모와 눈물의 재회...늦은 귀국, 짧은 재회, 다시 이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장류보브(오른쪽) 씨.

초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스민 지난 11월 1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한 연구임대아파트. 기자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 너머에서 환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김순자(80) 할머니와 남편 김현선(93) 옹, 딸 장류보브(59)씨가 반갑게 맞이했다.

정부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에게 제공한 비좁지도, 넓지도 않은 66㎡의 보금자리. 그러나 이 집은 누군가에게는 정착의 끝,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달기 어려운 ‘조국’이다.

두 모녀는 지난 10월 30일 8년 만에 상봉했다. 장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딸을 끌어안고 참아 온 눈물을 터뜨렸다고 했다.

김 할머니에게 당시 심정을 묻자, “무슨 말이 필요해요. 마냥 좋기만 하죠”라며 해맑게 웃는 얼굴엔 소녀 같은 미소가 번졌고, 눈가엔 그리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식탁에는 한국과 사할린이 한 상에 담겼다. 김 할머니가 준비한 김치와 시금치, 떡갈비 등 한국 음식과

딸이 러시아에서 가져온 연어알, 새우젓, 소시지가 함께 올랐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사이로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오가며 웃음이 새어 나왔다. 식사 후에는 러시아산 산딸기 차에 초콜릿과 과자가 디저트로 나왔다.

장 씨를 비롯한 사할린동포 2·3세 40명이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 초청으로 모국을 찾았다.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사할린 현지를 방문하기 어려운 영주귀국 1세대 부모와 조부모를 만나기 위해서다.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2017년 시작됐지만,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5년간 중단됐다가 5년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직항이 사라진 길은 멀고도 험했다. 장씨는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하이를 거쳐 하루 넘게 날아왔다. “예전엔 3시간이었는데...” 김 할머니는 “어서 직항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애뜻하게 말했다.

사할린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로 이주당하거나 현지에서 태어난 한인 약 2만6천명이 살고 있다. 1905년 러일전쟁 후 일본이 석탄과 목재가 풍부한 사할린섬을 점령하고, 1938년 국가총동원령으로 젊은 조선인 남성들을 탄광과 벌목장으로 끌고 갔다.

끊어진 직항 길...3시간이 24시간으로

김 할아버지의 가족도 강원도 삼척에서 일본 홋카이도로, 다시 사할린 탄광으로 강제로 이주당했다. 1945년 일본 패망 후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1946년 미·소 협정에서 송환 대상을 ‘일본인’으로 한정하면서 한인들은 귀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평생을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다.

“일본 사람들은 모두 떠났는데,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김 할머니는 1968년 아버지를 잃었고, 조국은 기억 속 고향으로만 남았다.

1992년 대한적십자사 초청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아 아버지 고향인 충북 괴산을 찾았다. 일제강점기 가족들은 괴산에 남겨둔 채



젊은 시절 찍은 김 할머니 부부 사진과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

8년만에 상봉한 김순재(왼쪽) 할머니와 남편 김현선(오른쪽)옹, 딸 장류보씨 씨.

아버지만 사할린으로 떠났고, 김 할머니는 사할린에서 태어났다.

오빠·언니들과 속리산을 함께 다니며 애뜻한 시간을 보냈지만, 2010년 다시 찾았을 때 언니들은 소식이 끊겼고, 오빠는 치매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살아서 다시 만났는데… 내가 누군지도 몰라보더라고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1세대 영주귀국이 허용됐지만 2·3세는 제외돼 가족들은 또다시 생이별을 겪어야 했다. 현재 사할린에는 1세대 동포 약 300명이 남아 있으며, 지금까지 3천여명이 영주귀국했다. 김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15년째 이곳에서 생활한다. 임대료는 대한적십자사가 전액 부담하고, 공과금은 할인이 적용된다.

“부부 각자 50만원씩 기초지원금을 받아 함께 100만원으로 생활해요. 의료보험 혜택으로 병원비와 약값을 거의 내지 않아요. 공원과 산책로도 잘 돼 있어 건강관리도 수월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할린의 기억…국적 잃은 조선인들

김 옹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를 배웠고, 소련 점령 후 북한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한글 교육을 받았다. 이후 러시아 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고 지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대학 강의를 했다. 영주 귀국 후엔 서울대학교에서 지진과 쓰나미 관련 특강을 하기도 했다.

김 할머니는 첫 번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할린에서 소를 키우고, 양복점을 운영하며 약삭같이 네 딸을 모두 대학에 보냈다. 자식들이 장성한 후 재혼했다.

“제대로 공부시켜야 '머저리'가 되지 않아요. 큰딸과 둘째 딸은

사범대학을 나와 영어를 가르치고, 막내딸은 휴대전화 회사에 취직했어요.”


특히 손주 넷을 둔 할머니가 된 장씨는 과거 한국 식당에서 일할 때 무시와 차별을 겪고 사할린으로 돌아간 쓰라린 상처가 있다. 그래도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으니 뿌듯하다”며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류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냉장고에는 김 할머니 손녀 결혼식 사진이 붙어 있었다. “제 결혼기념일이기도 한 지난 10월 10일 손녀가 결혼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어요.”

장 씨는 “명절 때 부모님의 빈자리가 느껴진다”며 “연세가 많아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어머니랑 여기서 살고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어에 서툰 그가 한국에 정착하기엔 언어와 적응의 장벽이 높다. 게다가 러시아에 사는 자녀들과 손주들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김 할머니도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이 러시아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한국말을 배우지 못했어요.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이 고생스럽기도 하죠.”

오는 12일 러시아로 귀국할 때까지 2주간, 모녀는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며 떨어져 있던 시간을 채울 예정이다. 김 할머니는 딸의 손을 맞잡고 말했다.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자주 보자. 이제 늙어서 만날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거실 한쪽에는 60년 전 사진과 함께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있어 눈에 띄었다. “열아홉에 농장서 한 달 일해서 산 옷입고 찍은 거예요.” 또 8년 전 제주도에서 조랑말을 타고 찍은 부부 사진도 진열돼 있었다. 늙어가는 걸 아쉬워하면서도,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 눈빛이었다. 

현대 수학 발전 기여한 미국 임덕상 교수

유한군 코호몰리지 · 변형이론 연구로 대수기하학 발전에 큰 업적
한인회장 역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활동 등 한인 사회에 봉사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1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현대 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1세대 재미동포 수학자 임덕상(1928~1982) 교수를 선정했다.

개성에서 태어난 그는 1946년 서울대 수학과에 1기로 입학했다. 그 해는 우리나라 최초로 수학과가 서울대에만 들어지고 조선수물학회(수학 · 물리)가 설립된 해다.

한국 전쟁의 혼돈 상황과 궁핍한 생활로 인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다. 개성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가며 학업에 매진하다보니 입학후 8년이 지나서야 졸업할 수 있었다. 이후 이화여고에서 교편을 잡다가 1955년 미국에 유학을 떠나며 수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방정식으로 나타낸 기하학적 대상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인 대수기하학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고, 이는 대수기하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1957년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유한군 코호몰리지 이론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한군 코호몰리지는 그룹의 구조와 대수적 성질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수학적 도구를 말한다. 대수학과 위상수학의 경계를 잇는 중요한 이론으로, 다양한 유한군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다. 그 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며 유한군 위에 정의된 모듈의 분류 이론을 만들며 당시 신생 수학 분야인 대수적 K-이론을 형성하는 토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기하학적 위상수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아이비리그 첫 한인 교수, 한국 현대 수학 발전에도 앞장

1959년 'Modules over Finite groups' 논문을 통해 당시 수학계의 큰 관심사였던 카르탕(H.Cartan)과 아일렌베르크(S.Eilenberg)의 호몰로지(Homology) 대수에서 제기한 난제를 해결했다. 그는 유한군 위에 정의된 모듈의



11월 이달의 재외동포에
재미동포 수학자 임덕상

분류 이론을 만들며 세계 수학계를 놀라게 했다. 파이를 유한군이라 하면 정수군환 $\mathbb{Z}[\text{파이}]$ 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모듈 중에서도 특히 사영차원(projective dimension)이 유한일 조건과 이 모듈의 코호몰로지가 자명할 조건이 서로 필요충분 관계에 있음을 증명한 것이 이 논문의 중심 정리다.

당시 브랜다이스대학 수학과 학과장이었던 오스카 골드만 교수는 임 교수의 수학적 재능과 연구 능력을 높이 평가해 1960년 이 대학에 영입했다. 5년간 부교수로 채용돼 강의와 연구에 몰두했고, 1965년 펜실베이니아대학 수학과 교수로 임용되면서 아이비리그 첫 한국인 수학 교수가 됐다. 이후 이 대학원 수학과 주임교수(1974~1975년), 수학과 학과장(1975~1978년)을 맡기도 했다.

20세기 최고의 기하학자로 꼽히는 프랑스 수학자 알렉산더 그로텐디크의 '세미나 노트 SGA 7 I'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는 현대 대수기하학의 토대를 형성하는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세계적인 학자들과 깊은 유대를 가졌는데, 동갑내

기였던 1966년 필즈상 수상자인 그로텐디크와 변형이론에 관한 책을 공저했다. 그로텐디크의 작업을 통해서 대수적 대상(환과 모듈)과 기하적 대상(다양체)의 연구가 완벽하게 동등해졌고, 이를 통해서 정수론의 난제를 대수기하학의 방법으로 연구하는 길이 열렸다.

‘페르마의 마지막 문제’와 같이 수백년 동안 난공불락이던 정수론 난제들이 대수기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 시작했다. 페르마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타원곡선이 현대인의 교통카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암호에 사용되는 걸 포함해서, 현실 세계와 무관해 보이던 대수기하의 새로운 응용도 속속 발견됐다.

서재필 기념비 건립위원장 맡아 건립에 공헌

임 교수는 재미동포 사회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제4대 필라델피아 한인회 회장(1974~1975년)을 맡아 지역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했고, 서재필 박사 기념비 건립위원장을 지내며 건립에 공헌했다. 서재필 박사 기념비는 필라델피아 주정부가 공원 내 기증한 부지에 필라델피아, 뉴욕,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성공과 우리 정부 지원금으로 건립됐다.

또한 1971년 창립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의 초대 본부평의원(1972~1975년)과 초대 장학위원(1978~1981년)으로 활동하며 미국 내 한인 수학자 및 과학자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했다.

임 교수는 조국의 열악한 수학 연구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겼다. 서울대학교가 미국 대외원조 차관을 활용해 재미 수학자들을 초빙했을 당시, 임 교수도 적극 참여해 1976년부터 2년여간 이 대학 대학원에서 대수기하학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과 한국 수학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1971년에는 대한수학회 초청으로 1주일간 특별강연회를 가졌고,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응용 수학에 치중하는 국내 수학계를 비판하며 본질적인 수학(순수수학)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 등 한국 수학계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언하기도 했다.

정부,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

임 교수는 수학자로서의 역량을 다 펼치지 못하고 1982년 54세의 일기로 미국에서 타계했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대수적 K-이론’과 ‘변형이론’의 연구로 대수기하학의 한 획을 그은 그의 공




컬럼비아대 재직 시절의 임덕상 수학과 교수(오른쪽 첫 번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1971년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

적을 기려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임덕상 교수는 뛰어난 수학적 업적으로 세계에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수학 발전뿐만 아니라 재미 한인 사회에 봉사하며 한인 과학도들과 동포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분”이라며 “임 교수의 업적이 널리 알려지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11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김평진 전 재일제주개발 협회장, 홍명기 전 M&L Hong 재단 이사장, 임천택 독립운동 지사, 박병헌 전 재일민단 단장, 박노학 전 사할린역 류귀환한국인회 회장, 이의경 지사, 서세모 의학박사, 서갑호 회장 등이 선정됐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복수국적 연령 하향 실시하라”

“700만 재외동포 역량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

“재일동포 30만 명, 정치적 권리 못 받아...일본 정부, 상호주의 원칙 적용해야”

“**이**제는 각자의 지역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코리언 네트워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민족 지도자들의 지혜와 단합을 통한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이자 곧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입니다.”

전홍배 ‘2025 세계한민족지도자대회’ 대회장(전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장)은 세계한민족지도자회의(KILC·이사장 정영국)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를 마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 한민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외동포사회의 숙원 과제와 미래 전략을 논의한 이번 대회는 해외동포정보센터(OKIC) 창립 14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월 23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 대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지도자들이 장거리 이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 자체가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준다”며 “모두 대한민국 발전의 큰 축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회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실질적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인 ‘더 넓은 세계로, 더 큰 한민족으로’는 약 700만 재외동포가 모국과 상생 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우겠다는 염원을 담았다. 전 대회장은 “재외동포 지도자들이 비즈니스, 문화, 교육, 사회 각 분야에서 서로의 역량을 모아 글로벌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외동포 사회의 숙원 과제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과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제 도입을 집중해 논의한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전 대회장은 “복수국적 연령을 65세에서 45세로 낮추면 병역을 마친 40~50대 동포들이 자유롭게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이는 인적자원 유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세계 지도자 결집 주도, 한민족 네트워크로 비전 제시

또한 “우편이나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면 동포들이 비행기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고, 투표율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가가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과 참여민주



전홍배 ‘2025 세계한민족지도자대회’ 대회장. 전 대회장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45세 하향과 우편투표 도입을 촉구했다.

주의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대회장은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 직전 회장이자 상임고문으로서 일본 내 참정권 문제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아 재일동포들이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다”며 “한국이 일본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재일동포에게도 같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본 내 특별영주권자를 포함해 약 30만 명의 재일동포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참정권

이 부여되면 한일 양국 관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외동포와 재일동포에 대한 특별 메시지를 각각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새 정부가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KILC의 미래 방향에 대해 “조직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산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영국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의 헌신이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회장으로서 처음에는 참여를 망설였지만, 정 이사장의 진정성과 추진력에 공감해 수락했다”며 “결과적으로 각국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 성공적인 첫 대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지 등 5개항 결의문

대회 결의문에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적극 지지 ▲청년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폭 지원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위한 남북한 대화 촉구 ▲한민족 비즈니스 글로벌 공동체 확산 ▲한민족의 문화와 번영, 정의로운 세상 이루기 위한 ‘더 넓은 세계로, 더 큰 한민족으로’ 실현 다짐 등 다섯 가지 주요 목표가 담겼다. 전 회장은 이 가운데 ‘청년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폭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그는 “KILC 회원들이 각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멘토링, 시장 정보 제공, 현지 연대 구축 등을 추진하면 청년 세대가 세계로 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과 문화교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해외의 젊은 동포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한글과 문화를 배우며, 반대로 한국 청년들이 해외 현장을 경험하는 교류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는 한민족 정체성 유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왕인 박사 추모제 등 한일 양국 간 민간교류에도 힘 쏟아


한편 전 회장은 일본 오사카의 일한친선협회 이사로서 양국 간 민간교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오사카에서 열리는 영암군 자매결연 축제와 왕인 박사 추모제 등 문화행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이해와 우호를 넓히고 있다.



‘2025 세계한민족지도자대회’에서 5개항의 결의문을 선포하고 있는 전홍배(왼쪽) 대회장.

일본 국회의원 출신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을 이해하는 일본인들과 교류하고 있다. 영암군에서도 군수와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야제 파티와 추모제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사안은 민감하지만, 문화와 인류애의 교류는 언제나 가능하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 세대를 위해 협력의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회장은 “한민족의 단합과 리더십은 국경을 넘어야 한다”며 “이번 한민족지도자대회를 계기로 세계 곳곳의 동포 지도자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함께 설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백제시대 학자인 왕인박사가 일본으로 향하던 행렬을 재현한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 모습. 왕인박사 일본가오는 왕인박사의 행적 중 가장 상징적인 사실인 일본으로 건너간 역사를 전남 영암 군민이 직접 출연해 재현했다.

“혐오 · 오해의 시대 끝내야” 중국 동포 인식 개선 한목소리

재외동포청, ‘중국 동포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화’ 개최

중국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중국 동포 단체장들은 “인식 개선은 캠페인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체류자격·국적·예산·교육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채현일·이재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동포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화’를 열었다.

김경협 청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로 귀환한 동포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00만 동포사회를 하나로 묶고 이들의 경험과 지식, 글로벌 네트워크를 우리나라와 연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확립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 국내 귀환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면서 ▲국내 동포 체류자격(H-2 및 F-4) 통합 ▲혐오 방지 입법 및 동포 다수 거주 지자체 조례 제정 ▲영주권 취득 및 국적 회복 요건 완화 등에 대해 조속히 완료하거나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채현일 의원은 환영사에서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재강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반복되고 있는 반중·혐중 시위를 비롯한 국내 동포들을 향한 혐오 표현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객석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은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중국 동포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화에 참가한 주요 관계자들. 왼쪽서 5번째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6번째는 공동 주최자인 채현일 국회의원.

과제”라며 그 중심에는 재외동포청이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 소장은 “인식 개선 활동이 일시적인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공고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춘화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객석주 재외동포청 심의관, 김정룡 다가치포럼 대표,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등 정부·학계·현장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놴. 객석 심의관은 “재외동포청,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H2 방문취업 비자와 F4 동포 비자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만 통합 후 허용 업종 범위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조정 중이며, 1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해 내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 동포 출신과 현장 활동가들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과 집행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OK-Biz, 전북 120개 중소기업과 수출상담

재외동포청-전북도, '2025 제3차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 개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손잡고 11월 12~13일 전주 라한 호텔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열어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나섰다.

12일에는 한상(韓商) 경제권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 활성화와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Biz), 중소기업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 주제발표,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변 차장은 개회사에서 "K-컬처의 전 세계적 인기와 경주 APEC 정상회의로 대한민국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우리 기업에 해외 진출의 최적기"라며 "수출 상담회가 전북 소재 우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에서는 전북연구원 나정호 연구원이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정은 교수는 '글로벌 한상 경제권의 미래: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음 세대 플랫폼'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상 경제권은 한국의 문화·경제 융합의 파급력을 보여주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넘어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 경제권'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콘텐츠, K-뷰티, K-푸드 산업의 글로벌 확산은 한상 네트워크가 가진 문화적 신뢰 자산과 결합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석준호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세계무역동향 및 국내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임혜숙 호주 한인복지회 이사(전 월드옥타 시드니지회장)는 '호주 시장으로 가는 길-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11월 12~1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에서 변철환(왼쪽서 4번째) 재외동포청 차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3일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Biz) 23명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초청한 해외 바이어 등 8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120개 기업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 도왔다.

특히 각 기업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매칭하고, 바이어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관세, 법률 등 통상정책에 대한 자문도 진행했다.

동포청이 개최한 1~2차(6월 부산, 10월 전남)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에는 재외동포 경제인 60명이 참가해 200개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380건, 수출상담 실적 696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2026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2~3건의 '세계 한인 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동포 권익 보호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 강화 및 법률 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는 고국을 일시 방문하거나 국내 체류 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민원에 대한 대응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MOU는 대한민국 법률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주국 법령 관련 대응은 제외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외동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및 연계 ▲국내 귀환 동포의 모국 사회 적응을 위한 법문화 교육 지원 ▲재외동포 법률 구조 사업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김경협 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재외동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김경협(왼쪽) 재외동포청장이 17일 재외동포 권익 보호를 위해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며 “두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국과 동포사회와 연대 강화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의 사할린동포 2세 24명 모국체험 위해 방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고령의 사할린동포 2세의 모국 유대감 강화를 위해 초청행사를 가졌다. 1세의 사망으로 영주귀국 대상이 되지 못한 이들이 대상으로 동포청은 24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18일 입국해 일주일간 서울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최근 APEC이 개최된 경주와 문경새재, 단양 등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또 국내 거주 중인 친지들과 재회의 시간도 가졌다.

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영주귀국자들이 해외 거주 자녀나 손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모국 방문도 지원한다.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1세 21명도 이번에 함께 모국을 찾았다. 이 사업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한적십자사가



재외동포청 초청으로 모국을 방문한 사할린동포 2세들

시행한다.

김경협 청장은 “이번 모국 방문이 사할린 동포들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모국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포청-예보, 귀환동포 대상 금융교육 · 취업지원 · 장학사업 추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국내 거주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와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 귀환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경제 · 금융 · 법률교육 ▲취업 준비 프로그램 ▲동포학생 대상 장학사업 추진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소재 동포청 본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유재훈 사장은 “동포청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 법률교육 등 공사 고유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동포들의 안정적 거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청장은 “국내 동포 정착 지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국내 사할린 ·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는 예금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든든한 우군이 생기게 되었다”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



김경협(오른쪽) 재외동포청장이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0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에 있던 국내 귀환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보다 가까운 곳에서 동포들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포청, 이민 120주년 맞은 멕시코 동포사회 지원 확대한다

재외동포청은 이민 120주년을 맞은 멕시코 동포사회의 맞춤형 동포 정책 확대를 위해 현지 사정 청취에 나섰다. 멕시코 한인 역사는 1905년 조선인 1천33명이 인천 제물포항에서 멕시코로 이민의 첫발을 디딘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2~7일 멕시코시티와 한인이 첫발을 디딘 메리다시를 방문해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중남미 지역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3일에는 멕시코시티 소재 한인회관과 한글학교를 찾아 재멕시코한인회를 포함한 한인 대표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간담회에는 허태완 주멕시코 대사, 정상구 재멕시코한인회장, 이종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미 · 카리브협의회장과 한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포사회 현안을 소개하며 동포청의 중남미 동포 대상 정책 강화 의지를 환영했다.



변철환(왼쪽서 3번째) 재외동포청 차장이 지난 5일 멕시코 메리다시를 방문, 유카탄한인후손회 대표자들과 재외동포청 지원정책,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3~7일: '멕시코 한인 이민 120주년의 해' 멕시코 동포간담회
- 10~14일: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 10일: 예금보험공사와 국내 귀환 동포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2일: 제3차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 13일: 해외 유력 언론사 활약 한인 언론인, 국내 기자와의 간담회 개최
전북 소재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한국 스타트업 시애틀 시연회
- 14일: 11월 '이달의 재외동포', 현대 수학 발전에 기여한 미국 임덕상 교수 선정
-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력 업무협약 체결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 24일: 제3차 국내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대화

재외동포청 공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찾아요”

재외동포청, 온라인 국민참여 이벤트 개최...12월 5일까지,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들의 모습을 국민과 함께 발굴·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을 대표하며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재외동포를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국민 참여를 통해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높일겠다는 취지다.

이벤트는 11월 19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재외동포청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재외동포'의 이름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후 팔로우 화면과 댓글 화면을 캡처해 구글폼에 업로드하면 응모가 최종 완료된다.

국내 거주자 10명에게는 네이버페이 1만 원권을, 해외 거주자 10명에게는 아마존 기프트카드 10달러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12월 9일 발표되며, 경품은 같은 달 중 모바일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될 예정이다.

동포청이 이번 이벤트를 추진한 배경에는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을 높이고, 다층적 소통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다. 세계 750만 재외동포는 정치·경제·문화·과학 등 각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들의 활약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가 적지 않다.

특히 SNS 기반의 '열린 추천 방식'을 도입해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공모전이나 시상 방식이 전문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이벤트는 일반 국민이 누구나 참여해 주변의 재외동포, 혹은 관심 있는 인물의 업적을 직접 소개하는 방식이다.

동포청은 공정성을 위해 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이벤트 기간 중 SNS 팔로워를 유지하지 않거나, 캡처 이미지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 응모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복 당첨 시에는 1회만 인정된다. 경품은 응모 시 작성한 정보로만 지급되며, 제출 이후 수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찾기 포스터

정은 불가하다.

동포청 관계자는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활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기리고 알릴 가치가 있다”며 “이번 이벤트는 국민이 직접 재외동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코리아의 활약상을 폭넓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숨겨진 재능, 알려지지 않은 감동적인 스토리 등 다양한 활약상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모두의 예방접종이 질병을 이길 병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2012. 1. 1. ~ 2025. 8. 31. 출생자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일정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 9. 22.(월) ~

1회 접종 대상자 | 9. 29.(월) ~

임신부

9. 29.(월) ~

65세 이상

75세 이상 | 10. 15.(수) ~

70 ~ 74세 | 10. 20.(월) ~

65 ~ 69세 | 10. 22.(수) ~

→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백신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 ~ 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자는 2회 접종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사전 확인 필요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 국소 이상반응: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 전신 이상반응: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 재외동포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유튜브



재외동포청 인스타그램